

## 공직자·경찰 사찰 호남인맥 집중

총리실 사찰문건... 참여정부 고위관료 주요 대상, 내용도 대부분 부정적

이명박 정부 이후 국무총리실 공직 윤리지원관실의 공직자 사찰이 주로 호남 출신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보고 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이는 현 정부 내 호남 인맥 축이와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5면> 광주일보가 전국언론노조 KBS본

부(이하 새노조)에서 입수한 '2008년~2010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작성 사찰문건'을 분석한 결과 당시 정부 및 산하기관에 근무했거나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위관료를 지낸 호남 출신 인사들이 주요 사찰 대상이었다. 2009년 하명 사건 처리부는 합령이

고향인 윤석운 전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과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어 확인 필요"라고 적고 있다. 여기에는 또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당시 농림식품부 장관이었던 김성훈 전 장관, 순천을 지역구로 뒀던 서갑원 전 의원 등이 켈트하우스를 분양받았다며 비위행위를 내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에는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합령 출신 박규환 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상임감사가 이 정부 들어 사표를 거부하고 있다며 명단에 올랐다. 호남 출신 경찰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9년 내사 처리부(자체)에서는 박진규 당시 대전동부경찰서장과 관

련 "서울 동작서장 재임 시 호남향우회(오빠회)를 결성하고 호남 관중 인사로 조직 내 위화감 불신 조성, 으름장은 음해와 모략으로 지휘권 무력화"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0년 2월 작성된 '전직 지방경찰청장 민주당 입당 관련 보고'라는 문건에는 홍영기(신안)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급 경찰 3명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보인 정부 비판 움직임이 꼼꼼하게 정리돼 있다.

한 지역인사는 "현 정부 들어 각계에 진출해 있던 호남 인맥들이 전멸했다고 보면 된다"며 "이러한 사찰이 결국 보고되고 인사에 반영된 결과 아니겠느냐"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알림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기념

## 서재필 박사 추모세미나

근대 개혁사상이자 언론인, 독립운동가인 송재(松齋) 서재필(徐載弼)박사 서거 61주년을 맞아 광주일보와 서재필 기념사업회는 박사의 애국혼이 서린 보성군 문덕면 서재필 기념관에서 추모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광주일보는 지난 1991년 우리 고장 보성태생인 서박사의 독립혼을 현창하기 위해 보성생가 복원사업 및 기념공원 조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데 이어, 미국 필라델피아 교외 남갈담에 쓸쓸히 방치된 서박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을 벌여 4년만인 1994년 마침내 서박사의 출생지 보성군에 서재필 기념관을 완공하고 박사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박사 서거 61주년을 맞아 광주일보는 서재필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영웅 정신을 기리고 그 유훈을 되새기는 학술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서재필 기념기념공원 전경



- 일시: 4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서재필 기념공원 내 계심헌 전시장
- 제1주제 (서재필과 김신정변) 김강경 조화정치연구소장  
토론=윤선자 전남대 사학과 교수·노찬백 광주보건대 교수
- 제2주제 (서재필과 임시정부) 오수열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  
토론=안성호 충북대 정외과 교수·박진교 광주일보 편집부국장

공동주최: 광주일보·서재필기념사업회  
후원: 국가보훈처·전라남도·보성군

로로 지난 2004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하는 등 광주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지난해 제5회 광주 인권상 시상식에는 영상메시지를 보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5·18의 정신과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고졸 이어 다문화인력 채용 바람

광주·전남 무역상사·무협 통번역사 선발  
광주은행 등 금융권도 공채 확산 움직임

고용시장에 '고졸'에 이어 '다문화가정 인력' 채용 바람이 불고 있다. 채용 규모는 아직 작지만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현장에 투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무역상사협의회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역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인력을 대상으로 '통·번역 및 해외 바이어 발굴에 활용할 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달 초까지 이들이 일할 업체 20곳을 선정해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다문화가정 인력 10명을 채용, 6개월 동안 무역 실무교육 등을 거쳐 통·번역 및 바이어 발굴 지원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센터는 이달 3

일까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산모도우미 3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산모도우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출산을 앞둔 다문화 가정에 파견돼 산모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을 하게 된다.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펼쳐왔던 금융권도 다문화가정 인력 채용에 눈을 돌리고 있다.

기업은행은 현재 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공채를 진행 중이다. 은행측은 영암을 비롯 서울, 경기 등 대규모 공단 인근 지점에 이들을 배치해 외국인 고객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은행도 연내 다문화가정 인력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를 우대하는 등 선발 방안과 일정을 검토중이다. 이들은

영암 대불공단 등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는 지역에 배치돼 금융업무를 맡게 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도 지난해 하반기 신입행원을 채용하면서 다문화가정 우대 방침을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누굴 찍을까 오는 5~6일 치러지는 4·11 총선 부재자 투표표를 앞두고 광주 동부경찰서 112 터럭대 전투경찰 대원들이 2일 내무반에서 부재자 투표용 선거공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기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인권상' 수차례 미안마 보선 압승

광주인권상 수상자이자 미안마 민주주의 아이콘인 아용산 수처(67) 여사는 2일 "야당의 보궐선거 승리는 국민의 승리이며, 새로운 시대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안마는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보궐선거를 치렀고, 선거에 출마한 수처여사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 사실 확정됐다. 수처여사는 이날 옛 수도 양곤에 있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사에서 연설을 통해 보궐선거 승리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NLD는 수처여사가 당 총재를 맡고 있다. 수처여사는 이번 선거에서 양곤의



민민층 지역인 카우무에 출마했고, 8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NLD는 수처여사를 비롯해 후보자를 내 44개 전체 선거구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년간 미안마 재야 민주화운동가로 활동해온 수처여사는 이번 승리로 제도권 정치로 진입했다. 수처여사는 미안마 민주화운동을 이끈 공

행복한 광주  
사랑으로

# 주간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 합시다!

“안전운전을 위한 팀이니까, 매너”

**차량 전조등(Headlight)이란?**

-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다른 차나 사람에게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경고수단
- 최근 출시된 국산차나 외제차는 주간 주행등 미장착 차량의 경우 전조등은 하향 라이트를 말함(국내법규도 개정하면서 국산차도 주간주행등 설치 가능)
- ※주간주행등(DRL, Daytime Running Lamps)은 주간점등을 위해 기존 등화장치외에 별도의 전용 등화를 설치 하는 것으로, 시동과 동시에 점등이 되며 EU에서는 주간주행등 규정을 1992년부터 제정해 2011년부터 유럽전역으로 의무장착(트럭과 버스는 2012.8부터)

**전조등 켜기 꺼리는 이유?**

- 연료 및 배터리 소모, 전구수명 단축 등 인식 때문
- 초보운전(운전미숙)자로 오해를 받고, 또 상대방 운전자에게 미안해서 등

**전조등 켜기 기대효과?**

- 운전자: 운전시 주의력·집중력 향상, 졸음운전·중요신 침범 등 사고방지 효과 발생
- 노인, 어린이 등 보행자: 자동차 위치가 쉽게 인식되어 사고예방 효과
- ※[2009년 교통안전공단] 전남지역 법민택시 1680대 주간전조등 시해결과 28% 감소
- ※[2008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주간전조등 점등 운행시 2.621억 비용편익 발생

**전조등 켜기 연료소모는?**

- 시속 60km로 50km의 거리를 주행할 때 0.1ℓ의 기름 추가소모(약 200원)